

▶ 아동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

김 미 경* (어린이집 교사)

한 세 영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전공 교수)

김 연 화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전공 박사과정)

현대의 사회는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여성들의 자아의식이 변화하면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취업주부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업주부들도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다양한 취미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유아들의 유아교육기관의 입학시기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한 아동들의 조기교육 추세와 학령기 이전의 유아들의 놀이방, 유치원등과 같은 보육시설 이용이 일반화 되고 있는 현상은 이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가정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유아간의 분리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일들이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사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머니와 유아간 분리가 일찍 일어나므로 어머니 분리불안과 유아의 분리불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성, 어머니의 직업유무, 어머니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과보호 양육행동의 차이는 유아의 성, 유아연령, 출생순위, 어머니 학력, 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또래 유능성은 유아성, 형제수, 출생순위, 어머니 연령, 유아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유형 및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분리불안, 유아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 및 과잉보호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과잉보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을수록 유아를 과잉보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교성과 주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또래유능성 중 친사회성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과잉보호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유아의 친사회성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으면 유아를 과잉보호 하게 되며, 이러한 과잉보호 행동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을 의미한다.

셋째,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 및 과잉보호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유아의 분리불안은 어머니가 유아를 아 기취급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교성과 친사회성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또한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유아의 분리불안은 아기취급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아기취급행동은 유아의 또래 유능성 중 주도성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 과보호 양육행동, 또래유능성은 어머니와 유아의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유아의 분리불안은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과 아기취급행동에 영향을 미쳐 유아의 또래유능성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유아시기에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가 또래를 사귀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친사회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어머니가 유아를 아기취급하는 행동은 유아의 주도적인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또래와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